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알레산드로 알로리(1535-1607),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 이탈리아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 14,31-33)

[제1독서] ..... 1열왕 19,9-11-13-14

[화답송] ..... 시편 85(84),9-10-11-12-13-14  
(◎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를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 로마 9,1-5

[복음 환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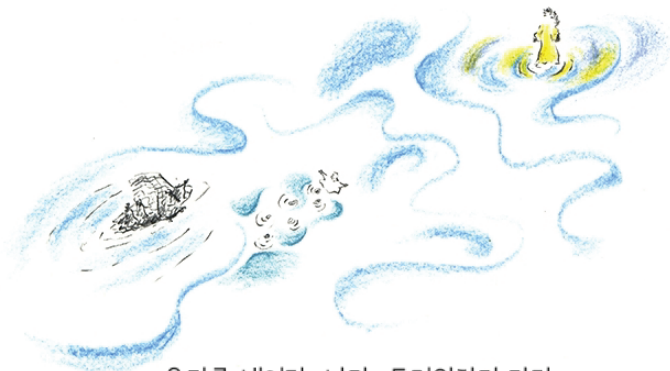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음] ..... 마태 14,22-33

##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sup>22</sup>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 <sup>23</sup>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 <sup>24</sup>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sup>25</sup>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 <sup>26</sup>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 <sup>27</sup>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sup>28</sup>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 <sup>29</sup>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다.
- <sup>30</sup>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 <sup>31</sup>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 <sup>32</sup>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 <sup>33</sup>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앞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마태오 14,27 -

Courage! It's me! Don't be afraid.  
- Matthew 14,27 -

바오로딸 문앤초

## 복음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은 삶의 불안 속에서 스스로 거두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독서의 엘리야 이야기는 복음의 베드로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호렘산으로의 여행에 엘리야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당신께 걸어오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께서서는 돌풍, 지진, 불길 속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잔잔한 미풍 속 작은 속삭임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엘리야에게 드러내십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한순간 순수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너라.”라는 말씀으로 초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수한 믿음은 불안과 의심으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다부진 용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 자신의 눈길이 결코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 안에서 둘로 떨어져 나간 상태’,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신감이 허물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둘로 갈려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만이,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삼키려 입을 벌리는 바닥 모를 심연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박기석 사도 요한 신부)

## 교황, “재화의 나눔이 형제애를 조성합니다”

### 교황청, 본당 개혁에 관한 훈령 발표

【바티칸 CNS】 교황청 성직자성이 사목에 관한 새 훈령을 발표해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본당 개혁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다.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전환」이란 제목의 22쪽으로 된 이 훈령은 7월 20일 교황청에서 발표했다.

교황청 홍보를 위한 부서는 “사목적 배려에 관한 새 법령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성직자성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본당 공동체의 혁신과 교구 개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침으로 이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은 또한 사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교구에서 부제, 축성 생활자 및 평신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훈령은 공동체의 사목 활동에 위임을 받아 참여하는 이들은 “본당 사제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사목 활동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사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교들에게는 “사제 없는 본당에서 책임을 위임받은 부제, 축성 생활자 및 평신도를 사목자, 공동 사목자, 교목, 중재자, 협조자, 본당 관리자로 임명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이 직책은 사제들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본당 사목을 위임받은 이들을 “부제 협력자, 협조자, 사목 협력자 또는 사목 보조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훈령은 “평신도는 일상생활의 증거를 통해 복음화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말했다.

성직자성 차관 안드레아 리파 몬시뇰은 성직자성에서는 본당 및 교구 개혁에 지원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이 훈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리파 몬시뇰은 “그리스도로부터 선교 및 복음화의 위임을 받은 교회는 오늘의 과제에 대응하려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모든 신자의 더 큰 공동 책임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신자에 대한 사목 방법의 혁신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훈령에서는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본당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훈령은 “교구 사제 부족, 교구의 재정 상황 또는 일시적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기타 상황 등의 이유로는 본당을 폐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본당 폐쇄의 합당한 이유는 “일반적 고려 사항이나 이론이 아니라, 해당 본당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신문〉

## 성모 승천 대축일



〈성모 승천〉, 심순화 작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러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이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 승천의 신비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신 하느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한다.

❖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 ❖

·일시: 8월 15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본당에서 지켜야 할 수칙

★아래의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 ▶ 가족이나 같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 2주 이내에 해외나 타주에 다녀오거나, 다녀온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2주 동안)
- ▶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2주 동안)

## • 주일 미사를 자제해야 하는 경우

- ▶ 노약자 및 고령자, 임산부, 만성질환자, 어린이 등 면역에 취약한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의무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링톤 교구의 모든 신자들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과 의무의 날에 미사에 참석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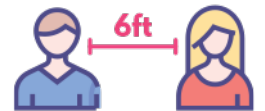
## • 성당 입장시 준수 사항

-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 **미사 참여자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6FT)**를 준수해야 합니다.
- ▶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99.5°F 이상 입장 불가)



## • 성당 안에서 미사 거행 시 준수 사항

- ▶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6FT 간격 표시된 자리**에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습니다.
- ▶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성체를 모실 때만 잠깐 벗습니다.)
- ▶ 성경과 성가집, 기도문 등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만 사용합니다.
- ▶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하고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 합니다.
- ▶ 봉헌이나 영성체 시에도 일정한 **개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 영성체 전에 사제가 미리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아멘’ 이라고 응답합니다.  
(**영성체 시에는 마음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 ▶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마스크를 썼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합니다.
- ▶ 미사가 끝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질서 있게 **즉시 성당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다음 미사를 위해 방역과 환기가 필요합니다.)



## • 일반 준수사항

- ▶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FT), 손 씻기 및 소독의 생활화
- ▶ 성당 건물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합니다.
- ▶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성당에 알려야 합니다.



## 1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일시 : 8월 15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사전에 미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미사는 생중계됩니다.

## 2 주일 미사 참여 신청에 대하여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분들이 미사 참여를 원하고 계시나 현재 미사를 자유로이 재개하기에는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사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놓아야 하고, 참여자 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100명씩 선정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성당 사무실(703-968-301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 평일 미사 재개

- **평일 미사 시간**
  -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 수요일 : 오전 11시
  -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 평일 미사 참여자가 지켜야 할 수칙 또한 주일 미사와 동일합니다.
  - \* **마스크 착용** \* **거리 두기**
  - \* **참여자 명단 작성** \* **발열 체크** \* **손 소독**
- 보다 안전하게 미사를 함께 봉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5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6 유아세례 안내

-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정된 날에 합동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별적**으로 유아세례를 거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 2021년 본당 달력광고 접수

- 2021년도 본당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703-968-3010)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 \$600

## 성소후원회 공지사항

### 본당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 그리고 후원금 모금

- 저희 본당에서도 2020년 가을학기부터 두 명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양성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는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해 교우 여러분들과 **미사 참여 (매달 둘째 주 금요일)**와 **묵주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학생들과 성소를 위한 후원회비와 후원금 모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오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는 성소 후원회비와 후원금에 대해 연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산해 드립니다.)

### ▶ 온라인 봉헌 : 성당 홈페이지

**봉헌하기** > 봉헌종류 - '성소후원' 선택 > Pay Now

### ▶ 우편 봉헌 : 성당

체크 메모란에 **‘성소후원’** 명기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교황님의 **8월기도지향** **삶의 터전인 바다**

**“선원과 어부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바다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2020-21학년도 **하상 한국학교**  
**정규학기 등록 안내**

**1. 입학 대상 (ADMISSION) :**

유치부-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K-12<sup>th</sup>)

**2. 학사 일정 (ACADEMIC SCHEDULE) :**

2020년 9월 12일-2021년 5월 22일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오전 9:30-오후 12:30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반별 수업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나타나면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3. 학비 (TUITION) :**

등록비(\$50) 포함된 비용 (등록비는 환불 안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400	\$380	\$360

**4. 등록안내 :**

학비 또는 등록비 \$50과 함께 아래 방법으로 접수

• <https://forms.gle/Bwnw2L2pv8aG4Rxt5>

• 등록비 보내실 곳:

**Hasang Korean School**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pay to order: Hasang Korean School)

• 등록마감 : **8월 15일**까지

**5. 기타 :**

• 문의 : 교감 김정선

☎ 571-217-8941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mailto:hasangkoreanschoolva@gmail.com)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19주 주간: 예레 34-37, 야고 2**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8월 2일(연중 제18주일)

주일헌금	\$1,569.00
교무금	\$9,3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400.00
감사헌금	\$1,210.00
2차헌금	\$0
<b>합계</b>	<b>\$13,539.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8월 12일(수) 오전 6:15-6:45 | 8월 15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황창연 신부님의 성서특강 '강은 인류에게 선물'** (메소포타미아 문명 2편)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13일(목) 오후 5:00-6:00

8월 14일(금) 저녁 8:00-9:00

8월 16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특집: 황창연 신부의 행복 특강 - 자신 겨안기 3B
-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감곡 매괴 성모 순례지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겸(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고편순(젼마),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황수현(바오로), 박수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김성례(안나), 이영민 (다윗), 한양수 (스테파노)

성경경에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골마8,26

The Spirit, too, comes  
to the aid of our weakness. Rom 8,26

<바오로딸 콘텐츠>